



스님들은 참선과 다도, 산행, 계곡 산책 등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자연에 순응하며 더위를 잊는다.

초복(初伏) 중복(中伏) 말복(末伏)이 나란히 이어지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의 30여일은 일년 중 가장 더운 때다. 옛 사람들은 세 번만 잘 없드리면(三伏 여름을 난다고 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더위를 이기기 위해 산과 바다, 계곡을 찾는 등 쉼소와는 다른 무언가를 준비한다.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는 산사에서 스님들은 어떻게 여름을 날까? 공교롭게도 선방의 여름 안거가 바로 이 무더위 속에서 진행된다. 화두와 씨름하는 스님들에게 '더위'라는 또 하나의 화두가 주어지는 것이다.

선풍기·에어컨도 필요없는 '화두삼매'

옛 선사들 가르침 음미하며 차 한잔 더위 잊어
이열치열 산행으로 굳어진 근육 풀기

하지만 깨달음을 향한 불퇴전의 길에 들어선 수행자 앞에서 더위는 무기력 할 수밖에 없다. 스님들은 밖으로 치닫는 마음을 안으로 돌리고 돌리는 참선 수행으로 청량함을 얻는다. 자연에 순응하며 본래의 마음자리 찾아가는 참선 수행이야말로 불제자들에게

가장 탁월한 피서법이 아닐까? 여름휴가와 방학이 한창인 때 전국구 사찰마다 수련회가 성황을 이루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참선과 더불어 차 마시는 일 또한 스님들이 더위를 이기는 비법 가운데 하나다. 함께 앉아 차의 맛과 향, 그리고 옛 선사들

의 가르침을 음미하며 더위를 잊는다.

또 복날 선방의 스님들은 절 뒷산을 오르는 산행을 하기도 한다. 산행을 다녀오면 스님들끼리 "보약 한 재 집수셨네요" 하고 덕담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데, 이는 계속되는 참선 수행으로 자칫 굳어질 수 있는 몸의 근육을 풀어주어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행하는 것이다. 복날 세속의 사람들이 보신을 위해 심계탕과 같은 보양식을 먹는 것과 같은 이치다.

절이 있는 곳에는 물도 잊게 마련. 스님들의 계곡 산책도 빼놓을 수 없는 여름 나기 방법 중의 하나다. 무더운 날 도반 스님들과 함께

근처의 계곡을 찾아 시원 계곡 물에 발을 담그고 수박 한덩이 나눠 먹는 맛, 이것도 사치일까?

강원의 초년생 화인스님들은 해야 할 공부가 너무 많아 탐욕을 시간도 없다고 한다. 고학년이 되어야 그나마 수건을 열려 두었다 예복 후에 흘린 땀을 닦는데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그리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니다.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것이 더위를 이겨내는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알기에 스님들은, 참진치(眞眞) 삼득심(三得心)을 여의고 자연에 순응하며 부처님 가르침 따라 생활하라고 일상생활을 통해 온몸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구국 영웅·당당한 師表

사명당, 내년 '이달의 문화인물'을 반기며

특/필/기/고



조영록

사명당기념사업회 이사
전 동국대 교수

문화관광부에서 지난 6월 사명당을 2003년 9월의 문화인물로 선정했다.

사명당은 불교계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 땅에서 태어난 나이를 사람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민족적 영웅으로 숭앙되는 분이다.

임진왜란을 당하여서는 의승병대장으로서는 적을 만나 싸움에 지는 법이 없었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사후처리를 위하여 일본으로 건너가

뚝한 양국간의 문화교류가 자연스레 이루어졌음은 물론이다.

사실 사명대사는 정군으로서보다는 사상가로서, 시인으로서 또한 서예가로서 완숙한 인품의 소유자였다. 지금도 일본 가토모토 기요마사의 원찰인 구마모토의 본묘사(本 묘사)와 사명당이 유수하였던 경도의 홍성사(弘聖寺)에 소장되어 있는 사명당의 유묵은 사명당의 그러한 풍모를 잘 전해주고 있다.

사명당의 공적은 다양하다. 따라서 그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특정 부분만을 논해서는 안된다. 그를 단순히 의승병대장에 국한하여 호국의 인물로서만 평가하는 것도은 당치 못하다. 문화관광부에서도 사명당은 보훈처에서 실시하는 호국의 인물로 분류되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명당기념사업회와 불교계 여러 기관에서 여러 차례 추천하였는데도 번번이 탈락했던 것이다.

그러나 2003년의 문화인물 선정에 대비하여 우리는 먼저 표창사가 있는 밀양시와 건봉사가 있는 고성군 문화관광과 관계자들과 서로 연

의승장이기 전에 사상가·시인·서예가

민족구제·인류평화정신 크게 선양해야

뛰어난 외교적 수완으로 국가의 세진로를 모색하는데 큰 공적을 세웠다. 그런데도 오늘날의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과서에는 옛날과는 달리 의병을 이야기할 때 그분의 이름만을 겨우 올려놓거나 일면의 일화만을 소개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과 같이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사명당과 같은 민족적 위인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그 정신을 배우는 일이 더없이 중요한 일인다고 말이다.

사명당은 구국의 영웅으로서만이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서도 당당하고 늘름한 사표(師表)였다. 금강산에서 왜장을 섬복시킨 일이나 울산 선생포 가토모 기요마사 진영에서의 회담, 그리고 일본 경도에서 새 권력자 도쿠가와 이에야스와의 회담에서 당당히 자기 주장을 펼쳤던 위인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를 비롯하여 사명당의 문화인물로서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문화관광부 담당관들을 설득시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작년 8월 회원들을 상대로 제1차 성지순례단을 조직하여 2박3일간 표창사, 봉도사, 해인사 홍제암, 직지사사를 다녀오면서 참가자 20여명으로부터 '사명당의 문화인물 지정 청원서'에 서명을 받아 문공부에 제출한 것도 그 한가지 경우에 속한다. 이 서명에는 고병익 전 문화재위원장과 이원경 전 문화관광부 장관, 본회 오재희 회장 등도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 하였으리라 생각한다. 이번 문화인물 선정에는 우리의 그러한 설득작업이 조그만 보탬이 되었으리라 믿는다.

정부에서 사명당을 내년의 문화인물로 선정할 때를 맞아 우리 교계에서는 불교정신에 바탕한 대사의 민족구제와 인류평화의 위대한 정신을 세상에 크게 알릴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것이다.

문화인물=이은자 기자 eyeel@buddhazoo.com

사찰 여름 별미



심심한 채소에 고추장과 참기름으로 맛을 내는 생채소 비빔밥

냉면... 들기름에 볶은 표고버섯·양념장 곁들여

매실 장아찌... 씨 뺀 매실 고추장 버무려 입맛 돋궈

스님들은 오곡밥을 벗어난 경지에 있어야 마땅하지만, 스님도 인간이기에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여름의 대표 음식으로 손꼽히는 냉면. 스님들이 좋아하는 사찰의 여름 별미 가운데 하나인 표고버섯 냉면은 들기름에 볶은 표고버섯으로 양념장을 만들어 찬 음식인 냉면에 따뜻한 기운을 더한 것이 시종의 냉면과 다른 점이다.

먹으면 장수한다하여 장명채(長命菜)라고도 불리우는 쇠비름을 비롯해 오이, 깻잎, 상추 등 여름철에 흔히 구할 수 있는 채소를 이용한 비빔밥도 스님들이 즐겨먹는 별미다.

채식위주의 식생활도 자칫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콩국, 찹쌀떡을 만들어 먹거나, 옥수수·호박·미역 등으로 맛을 내 모양이나 맛이 독특한 옥수수 된장 수제비, 시원한 매실차와 차를 우려낸 매실의 씨를 빼고 고추장에 버무려 만든 매실고추장 찹쌀떡 등도 여름철 무더위로 잃어버린 입맛을 돋궈주는 사찰 음식이다.

<신채소년의 사찰음식> '참고'

'모현선의 我采美展'



모현선 작 '我·1'

몸과 옷은 본래 하나다. 연꽃잎의 반복과 교차 속에서 새로운 질서와 아름다움의 가능성을 찾아 본 이색적인 전시회 '모현선의 아재미(我采美)' 전이 10월 16일 서울 관훈동 갤러리 창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는 끊임없이 움직임과 변화를 반복하는 살아있는

문화소식

자연물로서의 물, 고귀한 예술 작품으로서의 물,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완벽한 조형물로서의 물, 마음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물을 위한 20여점이 선보였다.

만해백일장 최고상 대통령상으로 격상

만해 한운은 스님의 사상과 문학 혼을 기리고 문화인재 양성을 위해 만해백일장의 일환으로 열려 온 만해백일장의 최고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됐다. 올해로 4회째를 맞아 8월 2일~3일 강원도 인제 백담사에서 열리는 만해 전국고교생백일장에는 전국에서 예선을 통과한 2백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국문화 체험학교 개설 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18~20일 주한외국인 및 교포를 대상으로 한국문화체험학교를 운영한다. 민속학자 주강원 씨의 민속강좌, 사찰문화체험(템플스테이), 한지공예, 김치 담그기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02-760-4573-4

창단 10돌 기념앨범 발매 영남불교대 합창단

영남불교대학 합창단이 창단 10주년 기념앨범을 발매했다. 영남불교대학 합창단의 세 번째 앨범이기도한 이번 앨범에는 '성불을 위하여', '화택세계', '공심공제' 등 아닌 노래' 등 총 18곡의 찬불가가 담겨있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대학원생 모집

국내 최초 유일의 불교전문대학원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2002년 9월 1일 개교합니다.

I. 모집학과 및 인원

- 1) 모집학과 : 불교(명상)학과 · 상담심리학과
- 2) 모집인원 : 석사과정 - 00명, 연구과정 - 약간명

II. 지원자격

- 1)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이와 동등한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부전공과 상관 없음)

III. 전형일정

- 1) 원서교부 및 접수 ● 기간 : 7.18(목) ~ 7.31(수) ● 장소 : 본교 행정실 또는 홈페이지(www.sgsb.ac.kr)
- 2) 전형일시 : 8. 3(토) 10:00
- 3)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IV. 제출서류

- 1) 입학원서 1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진첨부)
- 2)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3)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

V. 전 명 료 : 50,000원

VI. 특 전

- 1) 성적우수자 및 모범학생 장학금 지급
- 2) 우수 졸업생 해외유학지원 가능
- 3) 자격증 취득
불교(명상)학과 : 포교사, 불교명상치료사
상담심리학과 : 상담심리사, 상담심리전문가



도서관 강의실 제학단원실 휴게실

※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 808-3321, 6582 / 팩스 (02) 808-6581
주소 : 153-0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8-2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회원모집

안양 보광사 영각당(납골당)

안양유원지 입구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광사가 최고시설의 납골당을 준공하여 회원을 모집합니다.
(전철 1호선 관악역 도보 10분)



(장례에서 납골·49제까지 완벽한 서비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광사는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교육부 인가 전문대학원)·보문중고등학교(대전)·인양시노인복지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자체주차장과 공영주차장 600대 주차가능)